

## 다문화교육의 도덕과 교과교육적 적용에 대한 연구

정 탁 준  
(목포대학교 교수)

---

### 《 요 약 》

---

한국사회는 그동안 문화적·인종적 차이로 인해 크게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증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변화, 사회계층의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현상,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인식변화, 지역과 능력에 따른 차이의 심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의 확대 등이 나타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각의 정립을 토대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도덕교육적 과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여 도덕과 교육이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도덕과 교육 내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새 교육과정안을 통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보면, 목표에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합의에 이르도록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어야 하고, 내용에서는 민족, 인종, 능력, 부, 성, 지역, 연령, 장애, 신념과 종교, 이데올로기, 가족 구성, 성 정체성, 외모 등을 포함하여 다문화 관련 교육내용을 확대해야 하며, 방법에서는 덕목 중심 교육방법과 도덕판단력 중심 교육방법에 다문화교육적 요소를 반영한 교수모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 내용, 방법의 다문화교육적 적용에 있어서 공통적인 전제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포용해야만 도덕과 교육이 다문화시대에 발전적인 공동체의 가치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주제어 : 민족국가, 다문화현상, 다문화교육, 도덕과 교육과 다문화교육, 다문화교육의 목표, 다문화교육의 내용, 다문화교육의 방법

---

## I. 머리말

한국사회는 그동안 문화적·인종적 차이로 인해 크게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가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점차 확대된 세계화·국제화의 물결에 따른 변화와, 단일한 것으로 여겨지던 민족 내에서 보이는 다양한 지역 및 사회계층의 차이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적 괴리감의 확산에 의해, 다양성과 차별의 문제가 사회전면에 대두되고 있다. 특히 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증가,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변화, 사회계층의 정치적·경제적 양극화 현상, 성적 지향성(sexual orientation)에 대한 인식변화, 지역과 능력에 따른 차이의 심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의 확대 등이 나타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각의 정립을 토대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도덕교육적 과제가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과 혼인은 2001년도의 15,234건에서 2005년도는 43,121건으로 세배 가까이 늘어났으며(통계청 자료, [www.stat.go.kr/statcms](http://www.stat.go.kr/statcms)), 이러한 국제결혼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결혼의 추세는 세계화에 따른 국가 간 교류의 증대와 경제발전에 필요한 한국의 경제활동인구의 유지를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도시주변과 농촌에 국한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도시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촌 및 도시주변공단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조만간 도시로 유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보면 2020년계의 혼혈인구는 167만 명에 달할 것이며, 20세 이하 인구 5명 중 1명은 혼혈인이 되고, 신생아 3명 중 1명은 혼혈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중앙일보, 2006. 4. 3). 외국인 노동자와의 국제결혼은 주로 도회지와 도시주변 공업단지 등에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은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북은 2003년 전체 혼인율 중 7.8%이던 국제결혼이 2005년 17.6%로 늘어났으며, 전남은 2003년 8.9%에서 2005년 18.5%로 각각 늘어났다(통계청 자료, [www.stat.go.kr/statcms](http://www.stat.go.kr/statcms)).

한국의 도시주변과 농촌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혹은, 외국인 자녀들이 이제 학교에 입학하고 있다. 2006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7,998명으로 2005년에 비해 30.6%나 늘어났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교육인적자원부 보도 자료, 2006. 4. 28).

농촌지역 외국인 주부들뿐 아니라 도시나 공장지역의 외국 이주자들도 한국사회에 정착하고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지를 지니고 있다. 즉 한국사회에 통합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가정 내 언어교수자의 언어미숙 등에 따른 성장장애와 외국인 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학생의 피부색에 의한 차별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들이 한국사회에 진정으로 통합되기 위해서는 혼혈인도 당

당한 한국 국민의 일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그러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과 같은 제도적인 차원뿐 아니라, 혼혈인 같은 소수자들을 한국인의 한사람으로 인정하는 시각, 즉 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편견에 대한 저항력의 증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문화의 시기가 도래하여 사회통합의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이때,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했던 도덕교육을 통한 가정의 사회통합적 역할은, 가정의 해체 및 외국인 부모의 진입으로 인해 그 역량이 취약해지고 있다. 이웃 공동체로 일컬어지는 사회의 도덕교육적 기능마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시대에 이르면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오히려 학생들에게 편견과 차별을 공고화하는 교육의 역기능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도덕과 교육은 가정과 사회의 도덕교육 기능을 대체하도록 강력히 요구받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도덕교육을 실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사회에 대응한 도덕과의 교육적 적용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도덕과 교과교육학이란 ‘도덕’과 관련된 보편적 지식과 기능을 도덕교과를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 분별, 선정하며 질서화하는 학문을 뜻한다. 즉 도덕교과의 배경학문에 있는 보편적 지식과 기능을 특정의 대상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지식과 기능으로 분별, 선정, 체계화하면서, 그 작업이 어떤 필요와 가치에 입각한 것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에 대응하여 도덕과 교육이 다문화교육을 받아들일 때의 적절한 모습을 모색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문화에 대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그에 따른 판단 및 행동양식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를 묻는, 도덕과 교육적 견지에서 다문화교육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를 구상하는 것이다. 차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편견에 저항하는 사고 및 행동양식의 계발은, 학생들의 자아정체성의 발달에 비추어 비판적 사고와 관용의 정신계발 및 차별에 저항하는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다문화교육을 포괄한 도덕과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해 먼저 단일민족·단일전통의 개념이 민족국가의 형성에 서부터 비롯되었고, 그에 반발하여 다문화현상이 출현했다는 다문화주의의 배경을 살피고, 이후 도덕과 교육적 견지에서 다문화교육을 통합할 때 기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도덕과 교육 내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도덕·윤리과의 새 교육과정에 비추어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

## Ⅱ. 민족국가의 형성과 다문화현상의 출현

다문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민족국가(ethnic state) 혹은 국민국가(nation state)의 형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필수적인 것으로 보인다. 단일한 민족 및 단일한 전통의 개념은 근대 민족국가의 형성과 더불어 발달해 왔고, 이후 이러한 단일한 민족 및 전통에 이의를 제기하는 다문화의 개념도 나타났기 때문이다.

민족국가의 형성은 자본주의와의 관계, 민주주의와의 관계, 그리고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민족국가의 형성을 경제적 관점으로 설명하려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대두와 민족국가 형성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성이 존재한다고 말한다(Hobsbawm, 1990, pp. 18~27; Wallerstein, 1974, p. 56).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교황과 영주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신흥 부르주아 계급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를 보호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왕을 도와 강력한 민족국가의 출현을 지원하고 이용했다는 것이다. 영주와 교황의 간섭에서 벗어나 왕권을 강력히 하려는 국왕의 입장과 자신의 경제적 이익 보장을 원했던 부르주아의 입장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국왕의 입장에서는 전제정치를 위한 경제적 토대인 부국강병에 있어서 자본의 축적이 필요했고, 부르주아의 입장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질서를 법적·물리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다. 따라서 자본의 축적과 자본 축적 수단의 보장은 단일한 민족과 전통에 기반하여 민족적 동원과 희생을 강요하는 민족국가에 의해 촉진된 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 국민국가의 형성이 기여한 바가 있다는 것이다(Ben-Israel, 1992, pp. 367~391; Keane, 1994, pp. 169~184).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즉 민주주의 정부는 피통치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 안의 단일한 일체라는 점을 강조하게 된다. 말하자면 국가는 국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확보하려 노력한다. 따라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가는 국민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정치공동체의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전개하며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집단 정체성의 확인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셋째, 정체성의 실체를 원하는 인간의 심리가 민족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는 민족국가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다(Anderson, 1983, pp. 15~31; Fox, 1994, pp. 51~57; Pfaff, 1993, pp. 145~149). 본질적으로 인간은 자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어떠한 실체를 필요로 한다는 심리학적 이유에 의해, 인간은 자신이 가지는 시간적 혹은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대는 하나의 유기체

로써 민족공동체의 의미를 지니게 되며, 조상 혹은 후손의 이해를 민족공동체의 쇠락 및 번영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민족국가를 염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 부응하여 민족국가는 대중매체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 즉 민족국가의 실체를 대중들에게 전파하여 그 지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위의 세 가지 관점을 종합하여 보면, 민족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근대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역사적·정치적으로 형성된 인위적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민족국가는 문화와 정체성의 동질화 과정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개인들은 사적인 영역에서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작은 공동체의 특수한 문화적 형태를 발전시킬 수 있지만, 공적인 영역에서는 문화와 정체성의 획일화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약 두 세기에 걸쳐 유지되어 온 국민국가의 단일민족, 단일전통에 대한 강조는 1960년대 이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즉 민족적 다양성, 문화적 다양성이 사회의 전면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문화적 단일성에 대한 이의제기는 국가적 규모의 민권운동이나 제3세계 식민국가의 독립운동 등의 모습을 띄고 나타났다.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문화적으로 순응하여 스스로 미국인이라 생각했지만 미국 주류사회에서 배제되었다. 민권운동의 부분적 성공으로 인하여 흑인, 아메리카 인디언, 히스패닉, 아시아계 주민 등은 자신들의 특수한 문화를 인정받고자 하였다. 따라서 제3세계의 식민국가들은 자신을 지배하던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적 압제에 맞서 민족적 결속을 통한 저항을 모색하였다.

이민자의 문제도 다문화에 대한 요구와 관계가 깊다. 서구와 미국의 경제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의 확충은 대규모의 이민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초기의 이민자들은 일시적 노동력의 결핍을 보충하려 다른 나라로 건너갔고, 이들은 적은 돈이라도 모으면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에 그 나라의 주류문화에 적응하거나 단일한 문화와 전통의 강요를 말없이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믿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석되면서, 또한 자녀들이 그곳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문화적 관습을 감추거나 없애려는 생각은 점점 줄어들게 되었다.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자신들의 문화를 간직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주려 하였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는 자기가 태어나고, 국적도 가지고 있지만, 그 나라의 주류문화에 편입하지 못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이민자들은 문화적 동질성, 인종적 순수성이라는 민족국가의 논리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장경제의 세계적 확장의 문제도 다문화시대를 앞당기게 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기존의 대량생산시대를 벗어나 시장경제의 활력을 추구하기 위해, 자본은 문화적으로 우수하고 매력 있는 상품을 생산하여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역중심의 경제체제는 다국적 기업 등의 도움 아래 새로운 세계경제체제로 발전하였다. 예를 들어, 게임,

영화, 스포츠, 관광, 의학 등에 관련된 상품은 점차 범세계적으로 확대 판매되고 있으며, 현대인은 자국의 문화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알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다문화시대에 기여한 또 하나의 측면은 급속한 정보통신 및 교통의 발달로 인한 지식정보화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는 개인의 창의력 및 개방성을 중시하고 다양성의 보장이나 분권화를 요구하게 된다.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적 네트워크는 인간활동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사람들은 전통적 의미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바뀌어, 다른 문화의 사람들과 어떻게 의사소통하고, 정치·경제·문화적으로 공존하고, 함께 번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다.

### Ⅲ. 다문화현상의 이론적 배경과 다문화교육

현대사회는 세계화되면서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의 다양성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며, 이미 여러 나라들이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

호주의 다문화주의 도입은 아시아에 대한 경제 의존도의 심화와 아시아 이민 인구의 증가에 의한 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로, 문화를 고정적인 실체로 보고 관계된 집단을 배타적이고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진 것으로 보는 정책을 추진했다. 따라서 각 민족 집단 간의 상호교류가 없거나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집단들은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 등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으며, 민족 집단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상호보완과 문화의 풍요성을 창조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에서 소수민족 집단을 지역적으로 구분하여 자치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다. 다언어와 소수민족을 존중할 뿐 아니라 다문화집단의 민족자결을 인정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캐나다 헌법과 ‘기본권 및 자유에 관한 헌장’ 및 ‘다문화주의에 관한 법’에서 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공동체라는 세 가지 원칙은 지역적, 민족적, 국제적 쟁점들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 민족, 성,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한 공동체 안에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문화 간 의사소통의 과제를 주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기폭제의 역할을 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다문화주의에 따른 실천적 노력으로 나타난 다문화교육을 조망하여, 도덕과 교육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을 설정하고자 한다.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근거로는 문화상대주의적 입장과 포스트모더니즘이 있다. 문화상대주의적 입장은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대해 판단할 절대적인 기준이 없음을 인정한다. 이는 모든 문화는 그 내부에서 그 자체의 논리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한 사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하위문화들이 공존하며, 그것들은 독특하고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Guttek, 1993, p. 34; Hofstede, 1996, pp. 28~30).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의 보편성이나 생활양식의 동일성을 거부하며, 서로 다른 생활양식을 추구하고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권유한다. 단일한 실체에 의해 동질화되고 경직된 생활양식을 거부하여, 다양한 문화에 기반을 두거나 다양한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인정받고 정당화된다(Denzin, 2005, p. 515).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도 총체화(totalization)의 모든 시도가 폭력적이며,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고, 타문화에 의해 우열을 가리는 가치판단을 피한다는 점에서 문화상대주의의 입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주의의 의미에 따라 다른 문화의 요소를 도입하고,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 문화를 재발견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즉 모든 사회는 고정된 문화의 전수와 확대를 한다고 보기보다는 문화적인 생산과 창조의 터전이며, 이러한 특성이 사회 발전의 원천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영역에서는 인종 및 민족의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특혜를 주고 그들의 사회·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교육적 노력은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으로 나타난다. 다문화교육은 한 사회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을 확장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교육이다. 이것은 사회 내의 문화적 다양성이 가진 장점을 바르게 평가하고, 개인이 가진 각자 다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존중하며, 편견·불관용·인종주의·차별에 대해 저항하는 힘을 기르는 것을 추구한다(Banks, 1994, p. 1; Lynch, 1987, pp. 16~32).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설명된다(Banks, 2002, pp. 1~5).

첫째, 다문화교육은 개인들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문화의 시각을 통하여 더 큰 자기이해를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다문화교육에서는 무엇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존중의 덕목은 자연스레 따라온다고 여기고 있다.

둘째,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에게 문화적, 인종적 대안들을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역사적으로 미국의 학교들은 주류인 앵글로 아메리칸(영국계 미국인; Anglo American)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을 시행하여 왔다. 말하자면 미국의 학교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앵글로 아메리칸 학생들의 문화를 확대한 것이나 다름없고, 학교에서 앵글로 아메리칸 문화 이외의 다른 문화에 대한 제공은 거의 없었다.

학생들에게 미국의 주류문화만을 가르침으로써 학교는 미국 내 다른 인종적 집단이 가진 음악, 문학, 가치, 삶의 형태가 주는 풍성함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의 주류 학생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문학이 진귀할 뿐 아니라 풍성함을 지니고 있고, 이탈리아계 미국인과 멕시

코계 미국인들이 지닌 가치들이 주류 미국인들도 배울 만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셋째, 다문화교육은 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문화 안에서, 사회 주류의 문화 안에서 문화 간의 교류에 필요한 기술, 태도,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교육은 독특한 인종적, 신체적, 문화적 특성들 때문에 저질러지는 차별과 그에 따른 고통을 줄이는 데 힘쓰는 것이다. 주변화(marginalization)를 경험한 민족적 집단의 구성원들은 주류사회 내에서 별 구심점이 없다는 것을 느끼는 소외된 시민이 되기 십상이다. 자신의 기본적 집단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자기실현적이며 활동적인 시민이 될 수 없고, 정치·사회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족적 혹은 문화적 집단과 연결된 끈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적인 여러 교육 자료를 통하여 학생들의 필수적인 읽기, 쓰기, 수학의 기능들을 익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다문화적인 읽기 자료들과 다른 자료들은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 의미가 깊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선생님들이 인종, 민족적 특질, 혹은 사회적 계층 등과 같은 다양한 문화 및 인간문제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다룰 때 그러한 기능을 더 잘 익히게 된다. 현재 학생들은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문제가 실제적이며 중요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향성을 가진 다문화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문화교육의 이론적 토대인 다문화주의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교육을 수정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으려면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에 관한 접근은 문화적 차이나 정체성을 존중하고, 소수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을 인정한다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했을 지라도, 다음의 다섯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Martiniello, 1997: 윤진 옮김, 112~128).

첫째, 어떤 다문화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반대했던 동화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문화 안에서, 그것도 단 한 가지의 문화 안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즉, 그들도 사회집단들이 갖는 일관된 문화, 서로 간에 확연히 구별되는 불가공약적(incommensurable)인 문화들로 구성된 사회체제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들은 문화적으로 동화되려 노력하지만 주류사회에 편입하지 못하는 소수집단의 구성원들을 분석하면서, 주류사회의 문화공동체와 소수의 민족, 인종집단 등이 서로 간의 문화적 차이와 거리가 있으며, 따라서 더불어 살아가기 쉽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을 보호하고 문화적 차이를 존중한다는 구실을 내세워 문화와 집단들 간의 경계를 명확히 유지하려 함으로써, 개인을 한 문화적 집단에 귀속시키며 그에게 한 가지 정체성만을 강제로 부과하여 그의 자아를 고립시킬 수 있다.

셋째, 다문화주의는 다양성의 인정에 관한 논의를 전적으로 문화적 영역에 한정하여, 점점

더 심화되고 영향력이 강력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배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를 도외시할 수 있다. 문화를 사회를 읽는 유일한 열쇠로 삼아 문화·경제·사회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소홀히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넷째, 다문화주의는 어떤 집단이라도 결집하여 인정을 요구하고, 자기들의 특수한 희망과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인 혜택이나 특별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다수나 주류를 정의하기 어렵게 될 만큼 수많은 엉뚱한 이익단체와 집단들이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는 사태를 다문화주의가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주의는 기존의 도덕질서를 대신할 새로운 도덕질서로 정립하려는 시도를 통해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될 수 있다. 다문화주의가 기존의 도덕질서를 수정하고 재구성할 기회를 줄 수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 수많은 집단들이 내부적으로 지닌 도덕질서들이 완전한 공통성을 지닐 수도 없고, 몇몇 집단의 도덕질서를 전체의 도덕질서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비민주적이며 교조주의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문제점을 통해 다문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어 그 목표를 재구성해야 한다. 첫째, 문화는 행동과 사고를 결정하는 자연적 실체로써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개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정치적 구성의 과정을 통해 얻어진다. 둘째, 어느 문화나 고정적인 특성보다는 시간의 흐름과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한다. 셋째, 모든 문화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는 극단적인 문화적 상대주의(cultural relativism)는 인간과 사회가 지닌 보편적 가치에 의해 수정되어야 한다. 넷째, 개인들은 조상과 혈통, 그리고 언어에 의해 자신들의 정체성에 영향을 받지만,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문화에 동시에 소속되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다섯째, 다문화에 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뿐 아니라 성, 종교, 계층,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사회에서의 새로운 도덕질서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토론을 거치는 민주주의적 결정방식과 함께해야 한다.

## IV. 다문화교육의 도덕교육적 적용

### 1. 도덕교육과 다문화교육의 관계와 도덕과 새 교육과정의 분석틀

도덕교육이 추구하는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인간상은 도덕적 신념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도덕적 행동을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도덕인이라 부른다면, 도덕인은 항상 자신이 마주치는 도덕적 사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으며,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의해 의무를 이행하거나 선행을 하는 실천력을

지닐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덕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에 있어서 도덕규범과 도덕적 신념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일관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련의 활동을 뜻한다.

다문화교육이 도덕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뱅스(Banks, 2002, pp. 5~8)의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찾을 수 있다. 다문화교육은 소수뿐 아니라 주류 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문화적, 민족적으로 다양한 사회와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치는 교육기관들을 재구성하고 혁신하려는 운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교육의 초점은 민족 중심적, 혹은 여성 중심적이라기보다는 모든 학생들이 다문화의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식 있고, 배려적이며, 활동적인 시민이 되도록 돕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 다문화교육은 자유와 평등이 모든 사람들에게 고루 적용되지 못하고, 인종주의 등을 비롯한 갖가지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반성적 시민의 행동은 다문화주의의 필수부분이며 사회개혁을 위한 시민의 행동이 민주사회 속 다문화교육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다문화교육은 자유, 정의, 평등의 민주주의적 이념에 기초하고 있다.

다문화교육이 사회를 분열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한 사회가 이미 통합되어 있다는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의 나라임에는 분명하지만, 어떤 나라든지 이미 정치·사회적으로 인종, 성, 계급 등으로 분열되어 있다. 선거의 후보자와 복지정책 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들의 갈등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다문화교육은 강하게 통합된 사회를 분열시키려 하기보다는, 깊이 분열된 사회를 오히려 통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전통적 시각에서 한 사회는 다양한 소수의 문화들이 주류 문화에 동화되어야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다문화교육자들은 나라의 통합을 지지하지만 이러한 통합은 의견수렴을 거쳐 나라의 민족적,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본다. 나라의 통합은 유색인, 여성, 보수적인 사람, 동성애자, 권력자, 힘없는 자, 젊은이, 노년층 등을 망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여야 된다고 믿는 것이다. 나라의 통합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공동체들이 참여하여 공통의 시민문화를 창조하여야 가능하다.

도덕교육이 추구하는 자신이 마주치는 도덕적 사태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도덕적 판단을 올바르게 하고, 자신의 도덕적 신념에 의해 실천하는 도덕인의 형성은,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목적과 방법에 의해 그 의미가 풍부해지고 보완될 수 있다. 또한 도덕교육이 추구하는 도덕적 사회의 건설은 도덕적 통합성이 전제되어야 하고 도덕적 통합성에 있어서 문화적 통합성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즉 도덕교육과 다문화교육은 사회의 통합이라는 공통목표를 지닌 것이다.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문화교육은 현대의 다원화된 사회의 특성을 자유와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비판적 사고력과 반성적 시민의 행동을 통하여 토론과 참여에 의해 달성하려 한다. 도덕교육이 핵심요소로서 포함하고 있는 도덕적

사고력에 있어 비판의 능력, 도덕적 실천력에 있어 반성적 행동계획의 수립과 그 실천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중요시 된다. 따라서 도덕교육에서 추구하는 도덕인의 형성방법에 다원화된 사회변화에 발맞춘 다문화교육은 중요 시사점을 주고 있다.

도덕·윤리와 새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틀은 사회의 통합을 위해 다원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에 따른 도덕적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는 다문화교육이다. 이 다문화교육은 다음과 같은 지향점을 지닌다. 첫째, 문화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을 통해 얻어진다. 둘째, 문화는 다른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한다. 셋째, 문화의 상대성은 보편적 가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넷째, 다문화적 사회문제의 해결은 문화뿐 아니라 성, 종교, 계층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결할 수 있다. 다섯째,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도덕질서는 많은 사람의 참여와 토론의 과정을 거쳐 결정될 수 있다. 여섯째, 다문화교육의 목표는 모든 학생들이 다양성의 사회에서 지식 있고, 배려적이며, 활동적인 시민으로 행동하여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

## 2. 한국 도덕과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목표

최근 개정된 새 교육과정의 도덕·윤리와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위의 분석 틀을 이용하여 새 교육과정의 다문화교육적 적용 정도가 어떠한지 분석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시의 적절할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의 도덕·윤리 과목의 개정안(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2007-79, 2007)에서 먼저 도덕과의 성격과 목표 중 다문화교육적 요소를 다루어 보자.

제7차 교육과정 도덕과 개정안의 ‘도덕과 성격’에서는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적 발전과 급속한 다원화와 정보화 추세에 따라 이념갈등·가치갈등·세대갈등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개인들의 가치관 혼란 및 사회 분열 양상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도덕과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개인의 가치관 확립과 우리 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 기반의 공고화를 그 중심 과제로 삼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교과목표에서는 “자신과 타인·사회, 국가·민족 및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덕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생활 속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도덕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 실천동기 및 능력을 함양하여 자율적이고 통합적인 인격을 형성한다.”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선택과목인 ‘현대생활과 윤리’의 개정안의 목표를 보면 “문화·예술 생활 및 종교 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다.”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위의 진술들을 살펴 볼 때, ‘급속한 다원화와 정보화 추세에 따라 이념갈등·가치갈등·세대갈등 등의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는 문구에서는 현대 한국사회의 다원화된 현상과 도덕적 혼란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관의 혼란을 ‘우리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기반을 공고히 하여' 해결하리라는 진술은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기존의 도덕적 전통에 기반하여, 다양화되는 여러 가치관을 통합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다. 이러한 시점은 조상과 전통과 언어가 같다는 단일민족의 이념에 의해 문화와 정체성을 동질화하는 민족국가의 도덕관이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새 도덕·윤리와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우리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기반을 공고히'한다는 것이며, 공고히 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다문화교육적 관점에서 보면, 한 사회는 어떠한 변하지 않는 자연적이고 항존하는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사회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체성을 창조해 나간다. 따라서 교육에 있어서도 주어진 집단 정체성에 학생들을 적응하도록 돕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상호소통하는 것이 '우리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기반을 공고히'하는, 그리고 '문화·예술 생활 및 종교생활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 진실한 방법이 된다. 따라서 성격과 목표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합의에 이르도록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한국적인 특수한 과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세계화와 시장개방과 함께 급격하게 유입된 다문화와 관련된 서구적 가치관과 한국의 전통적 가치관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둘째, 다문화가 상당히 진행된 서구와 달리 이민과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과의 국제결혼의 상황이 이제 초기 단계이며, 이러한 때 어떠한 다문화교육이 필요한지의 문제가 있다. 셋째, 문화 상품의 확산과 정보통신의 발달이 기성세대보다 청소년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들이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할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시급한 문제가 있다. 넷째, 문화 간의 차이만큼 성, 종교, 사회계층 간에 다양한 관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들을 도덕과 교육 내에서 다문화교육이 포용해야 한다는 과제가 있다.

개괄하여 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관련 도덕·윤리와 교육과정 개정안은 주류문화의 시점을 중시하는 반면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집단의 문화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국적 특수한 문제에 일반적인 다문화주의의 문제를 상호 고려하여, 도덕과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목표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도덕교육은 그 속성상 한 공동체 내의 구성원들이 가지는 가치의 통합을 추구한다. 다문화주의나 다문화교육이 기존의 가치관을 해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인정하고 포용해야만 발전적인 공동체의 가치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공동체의 가치는 자연적으로 원래 주어져 있어 변화하지 않는다고 기보다 다양한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참여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소통함으로써 그 단초가 제공되기 마련이다.

### 3. 한국 도덕과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적 내용

도덕·윤리와 새 교육과정의 다문화 관련 교육내용(교육인적자원부, 2007)에는 6학년에 ‘편견극복과 관용’과 ‘평화로운 세상’, 9학년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극복’, 및 ‘세계평화와 인류애의 실현’ 등이 들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관용의 태도를 지닌다.’, ‘다른 문화에 대한 우리의 편견과 극복’, ‘소외받는 이’, ‘양성평등’,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지닐 것’, ‘이주노동자와 인종에 대한 편견’ 등을 다루고 있다. 현대생활과 윤리 교육과정 개정안에는 ‘청소년 문화와 윤리’ 등을, 윤리와 사상 개정안에는 ‘다원주의와 관용’, ‘공동체와 연대’, ‘자민족 중심주의와 자국가 중심주의의 부정적 결과’ 등을 언급하고 있다.

도덕·윤리와 새 교육과정의 다문화 관련 교육내용들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주로 ‘외국의 문화’, ‘다른 나라의 문화’, ‘세계의 다양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타문화’와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대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에 단일하고 고유하며 변하지 않은 문화가 있다고 전제한다.

또한 ‘현대생활과 윤리’ 교과는 우리사회 내의 생활과 밀접한 다문화의 실제적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대표적인 도덕과의 교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윤리’라는 영역에서 다문화에 관련한 내용이 빠져있고, 단지 ‘청소년의 문화’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이다. 즉 우리나라 내부에도 있는 다양한 계층, 성, 민족 등이 지닌 문화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이와 관련할 때, 뱅스(Banks, 1994, pp. 29~32)가 다문화교육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용되는 수준을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는 그 수준으로 첫째, 민족이나 문화집단에 대한 내용을 축제나 기념일 등에 국한하는 초기 단계, 둘째, 문화적인 내용, 개념, 주제가 교육과정에 추가되는 단계, 셋째, 교육과정의 원리나 패러다임, 기본적인 전제 등을 변화시켜 다양한 문화적 시점에서 개념이나 논점, 주제, 문제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질적 변환의 접근 단계(transformation approach), 마지막으로 질적 변환의 접근법을 보다 발전시켜 그에 따른 시민적인 행동계획이나 활동을 중시하는 의사결정 및 사회적 행동접근 단계로 제시한다.

뱅크의 척도에 따른다면 제7차 도덕·윤리와 교육과정 개정안의 교육내용 선정 기준은 그가 제시한 첫째 단계, 혹은 둘째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정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내용선정의 원리가 질적인 전환을 이루어 교육내용으로 다문화의 개념, 논점, 주제 등을 다루고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시점을 두루 제시할 수 있게 된다. 그 래야만 다문화 사회에서의 올바른 가치판단의 토양이 마련되고, 그 판단을 통해 올바른 도덕적 행동의 실행이 가능해 진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소개도 다른 나라의 문화라는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내의 다문화적 내용도 ‘양성평등 및 이주 노동자’에 국한하고 있어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점을 감안하여 도덕과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하여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그 주제들은 민족, 인종, 능력, 부, 성, 지역, 연령, 장애, 신념과 종교, 이데올로기, 가족구성, 성 정체성, 외모 등을 포함한다.

〈표 1〉 도덕과 교육과정의 다문화교육 내용 구성시안

구분	다문화교육 내용		활용자료 예시
	주제	관련 내용	
일반적 문화 이해	문화의 다양성과 도덕	문화 및 다양성의 개념과 사회의 도덕	우리가 가진 편견들/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반편견의 자세/차별과 구별의 의미/공동체의 삶과 공존의 중요성 등을 표현하고 있는 수기, 인터넷 사이트, 통계, 영화, 플래시, 대중가요, 시, 고전, 신문기사, 방송프로그램, 광고, 명언 등
역사적 배경	한국사회의 다양성 증대 요인과 현상	한국의 경제발전, 세계화, 외국인의 유입과 도덕문제	
차이에 대한 긍정적 반응	다양성의 이해와 관용	나와 다른 것에 대한 열린 자세와 태도 역할채택	
차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	편견과 고정관념	편견과 고정관념의 형성요인과 극복	
	차별	차별의 실태, 차별 존재의 이유와 극복	
다문화의 양태와 도덕적 문제 I	민족	언어, 관습, 생활양태	
	인종	피부색, 외적특징	
	능력과 부의 차이	직업과 계층의 차이, 학벌	
	성	남성과 여성의 존재와 조화	
	지역	지역주의, 연고주의	
다문화의 양태와 도덕적 문제 II	연령	유소년, 청년, 장년, 노년기의 사람들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선택」(안철수)</li> <li>• 진로체험 사이트 이용</li> <li>• 「좋은 생각」 수기</li> <li>• 채팅방의 대화, 공익광고</li> <li>• 소설 「장발장」, 「용서」, 「관용」</li> <li>•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달라이라마)</li> <li>• 「명심보감」</li> </ul>
	장애	다양한 장애인의 현실과 비장애인과의 관계	
	신념과 종교	종교 및 신념, 이데올로기 간의 갈등들	
	가족구성	한부모 가정, 미혼모, 고아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성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외모와 말씨	외모지상주의, 사투리, 말버릇	

존중과 관용의 태도형성, 편견과 차별의 극복방안	인지적 요소	보편적 인권에 대한 인식, 한국사회의 공동체적 의미, 반차별을 위한 법과 제도의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화 &lt;6월의 일기&gt;</li> <li>• TV동화 행복한 세상, TV인간극장</li> <li>• TV cf(KT &amp; G), 소설 「나무를 심는 사람」</li> <li>• 시사매거진2580, 신문기 사, 광고 활용</li> <li>• TV 광고(애국 마케팅)</li> <li>• TV프로그램(남북의 창)</li> <li>• 전쟁 다큐멘터리 활용</li> <li>• 영화 &lt;아일랜드&gt;</li> </ul>
	정의적 요소	반편견과 반차별에 대한 공 감, 동기 형성	
	실천적 요소	차별에 저항하는 의지와 실 행기술	
	통합적 적용	반차별에 대한 인지·정의· 행동적 요인, 일상생활에서 의 반차별 실행기회 부여	

#### 4. 한국 도덕과 교육에서 다문화교육의 방법

다문화교육의 방법은 다문화교육이 추구하는 목적에 후행하는 것이다. 즉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덕목을 기르고 편견과 차별에 대해 저항하고 극복하며 도덕적 분석을 통해 판단하고, 그 판단에 맞추어 도덕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참여하여 통합적 문화를 창조한다는 목적에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사회에 걸맞은 덕목의 함양, 다문화현상에 대한 비판적이고 반성적인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의 함양,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위한 실천능력의 강조 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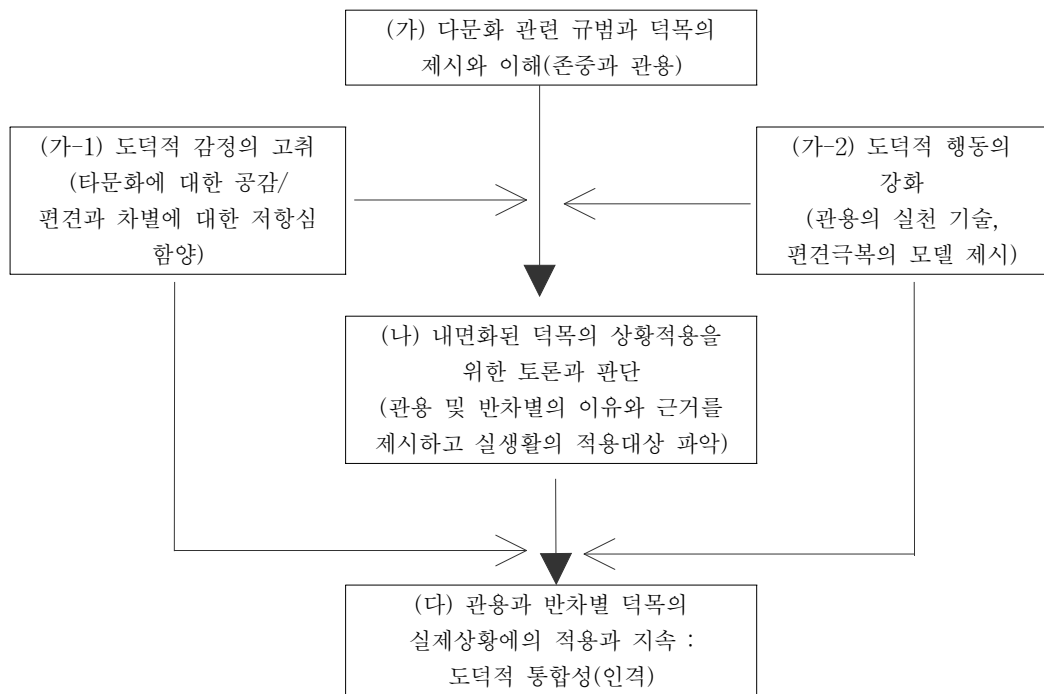
이때,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저항과 극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존중과 관용의 덕목을 기를 뿐 아니라 현존하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실천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편견과 차별의 극복방안을 중심으로 도덕과 교육에서의 다문화교육의 방법을 다루고자 한다.

편견과 차별에 대한 저항과 극복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편견과 고정관념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분석하여 그 대응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린치(Lynch, 1989, pp. 32~51)는 편견의 형성과 그 극복방법에 대해 논하고 있다. 먼저, 편견의 형성(prejudice acquisition)을 한 개인이 인종, 민족, 신념, 성, 문화 등이 다른 사람을 불평등하게 다루는 행동을 하는 데 기여하는 가치, 지식, 태도, 행동양식을 습득하는 복잡한 사회화의 과정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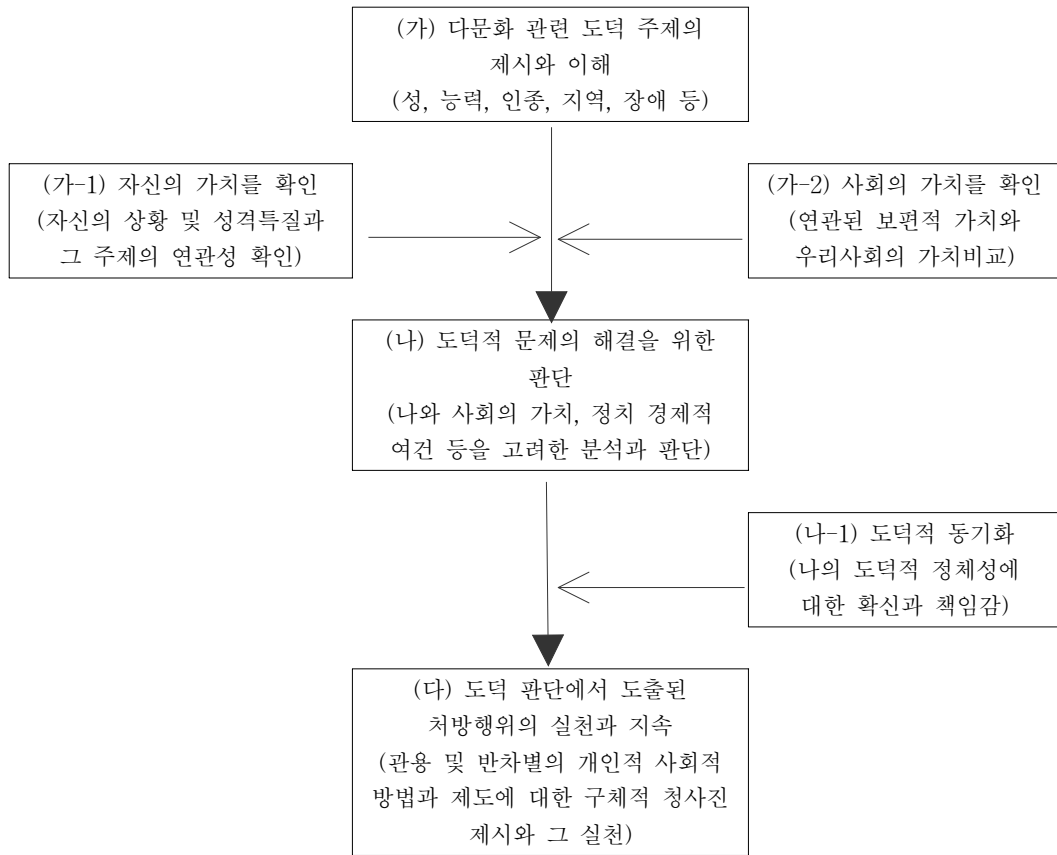
이러한 편견의 형성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특질에 따른 것으로, 어떤 사람들은 인종, 민족, 성, 문화 등을 이유로 다른 사람에 대해 우월한 의식을 갖고 그들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위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견을 습득한다. 둘째, 사회적 문화에 따른 것으로, 어떤 사회는 사회에 만연된 분위기와 규범에 의해 편견이 조장된다. 셋

제, 사회적 여건에 따른 것으로, 경제·정치적 여건 때문에 다른 특징이나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게 하고 차별하도록 조장한다. 셋째, 집단 간의 교류빈도에 따른 것으로,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이나 개인과의 접촉이 빈번하지 않을 때는 타문화에 대한 걱정과 불안의 정도가 높아져 편견과 선입관을 획득하게 된다. 즉 개인 내에 존재하는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본능적 공포와 비선호 감정, 경제·정치적 경쟁, 단일한 문화를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타문화에 관련한 안 좋은 경험, 죄의식의 투사 등이 편견의 습득에 있어서 구체적인 요인이 된다.

이러한 편견의 획득과 차별행동의 발생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덕과 교육에서 추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방법인, 덕목 중심 교육방법과 도덕 판단력 중심 교육방법(정택준, 2006, pp. 234~249)에 다문화교육적 요소를 적용하여 [그림 1]과 같은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림 1] 덕목 중심 도덕과 교육방법의 다문화교육적 적용모형



[그림 2] 판단 중심 도덕과 교육방법의 다문화교육적 적용모형

위의 모형들을 구체화하려면, 스트로건(Straughan, 1982)의 내용에 대한 교수(teaching that), 방법에 대한 교수(teaching how), 행동에 대한 교수(teaching to)의 도덕교육방법, 화이트(White, 1998)의 자연스런 과정(natural process)을 중시하는 도덕교육방법 및 사회적 유도(social induction)의 방법, 래플린과 하투니안(Laughlin & Hartoonian, 1995)의 가치지지(value advocacy), 도덕추론(moral reasoning), 가치기술(value description), 가치명료화(values clarification), 가치분석(values analysis) 방법 등 다섯 가지 방법, 커센바움(Kirschenbaum, 1995)의 함양(inculcation), 본보기(modeling), 촉진(facilitating), 기술(skill) 등 네 가지 방법, 반더벤(van der Ven, 1998)의 규율(discipline), 사회화(socialization), 전수(transmission), 발달(development), 명료화(clarification), 감성형성(emotional formation), 인격발달(character)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토대로 도덕교육의 다문화교육적 교육방법 개발에 필요한 도덕성의 인지적·정의적·행동적 요소들, 개인의 도덕 심리적 발달, 사회규범의 습관화, 자유주의적 측면 및 공동체주의적 측면의 시사점 등

을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요약하면, 도덕과 교육의 다문화교육적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져야 한다. 첫째,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의 도덕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둘째, 인종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등의 문화·인종에 관련된 여러 가지 편견과 차별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셋째, 자아개념(self-concept) 혹은 자아정체성(self-identification)의 발달에 조응한다. 넷째, 정확한 정보의 전달, 잘못된 정보의 수정, 편견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 및 감정이입과 공감능력의 확산, 비판적 사고력과 의사결정 및 갈등해결 능력의 신장, 편견과 차별에 대응하는 실천성향의 증대, 편견과 차별에 저항하는 가정과 학교의 분위기 증진 등의 지적·정의적·행동적 영역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이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도덕교과 교육과정과 밀접하여 수업 활용에 용이할 것, 둘째, 학생들과 가까운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흥미와 도덕적 의미를 연계할 것, 셋째, 지속적 피드백(feedback)을 통한 도덕적 사고력을 자극할 것, 넷째, 일상생활에서의 도덕적 문제에 대한 처방능력을 신장할 것, 다섯째, 도덕적 체험의 기회 부여를 통한 반성과 다짐의 시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 등이다.

## V. 맺음말

한국은 세계화·국제화 및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해 외부 문화와의 빈번한 접촉과 사회 안에서 보이는 성, 인종, 지역, 부, 능력, 외모, 가족구성, 계층, 성적 정체성 등의 다양한 문제가 나타나면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각의 정립을 토대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한다는 도덕교육적 과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다문화시대에 대응한 도덕과 교육의 적응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에 대한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자신과 다르다고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행동양식을 어떻게 발달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도덕과 교육적 견지에서 다문화교육을 통합할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도덕과 교육의 다문화 관련 교육목표(새 교육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우리사회의 공통적인 도덕적 가치기반을 공고히 하여’ 해결하겠다는 표현은 다문화사회의 문제를 기존의 도덕적 전통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의 침투에 의해 도전하는 여러 가치관을 통합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은 혈통, 전통, 언어, 문화가 같은 단일민족·단일문화의 이념에 의해 여타 부수적인 문화들을 동질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의 문화는 어떠한 변하지 않는 자연적이고 항존하는 정체성을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구성원들의 상호작용과 참여에 의해 그 정체성을 창조해 나간다. 따라서 새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에 있어서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합의에 이르도록 참여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면 그러한 우려는 불식될 것이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교육과정의 원리나 패러다임, 기본적인 전제 등을 변화시켜 다양한 문화적 시점에서 개념이나 논점, 주제, 문제 등을 고찰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 질적 변환의 접근(transformation approach)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인 개념, 논점, 주제 등을 다룰 때, 국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적 시점을 두루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다문화사회에서의 올바른 가치판단의 토양이 마련되고, 그 판단을 통해 올바른 도덕적 행동의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타문화에 대한 소개도 다른 나라의 문화라는 일반적 용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내의 다문화적 내용도 ‘양성평등 및 이주 노동자’에 국한하고 있어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비판점을 감안하여 도덕과 교육의 다문화교육의 내용을 우리나라와 외국의 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주제를 통하여 재구성하여 보면, 그 주제들은 민족, 인종, 능력, 부, 성, 지역, 연령, 장애, 신념과 종교, 이데올로기, 가족구성, 성 정체성, 외모 등을 포함해야 한다.

방법에 있어서는 편견과 차별이 생기는 원인에 대한 고찰을 통해 그에 대한 저항과 극복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방법을 제안하였다. 덕목 중심 교육방법과 도덕 판단력 중심 교육방법에 다문화교육적 요소를 반영한 두 가지 모형의 적용은 존중과 관용의 덕목을 기를 뿐 아니라 현존하는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실천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리라 기대한다.

도덕과 교육에 다문화교육을 적용하려는 노력은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으리라 전망해 본다. 첫째, 이러한 노력은 한국사회의 소수자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일반학생들이 인종과 문화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교육의 목표 중 하나인 인권교육의 확산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교육의 주요부분인 반편견과 반차별에 대한 교육은 한 사회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측면에서 인권신장의 주요한 주제들이며, 학생들에 대한 반차별 교육은 학생의 인권신장뿐 아니라 미래 한국이 인권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실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권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인권장전들을 비준한 UN 가입국의 하나이기 때문에, 학생뿐 아니라 일반 국민을 위한 인권교육에 매진해야 할 정당성과 이유는 충분하다.

한편, 이러한 노력이 제안하는 향후 연구 과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한국

내 다른 지역 및 다른 대상의 문화적·인종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관심과 그 극복에 도움을 주려는 시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탈북자 자녀, 외국 노동자 자녀, 미군과 한국인 사이의 자녀들, 불법체류자의 자녀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관심이 다른 연구로 이어지게 되면 미국, 일본, 베트남 등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의 인권 신장과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러한 노력은 다문화 및 반차별 교육이 학교 및 지역사회로 널리 전이되도록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에 산재한 각종 편견과 차별의 극복을 위해, 학교에서는 도덕과를 중심으로 학교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부모와 공동체도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반차별의 길에 동참하도록 고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학교에서는 교장과 교감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와 구성원들의 반차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키고, 수업시간뿐 아니라 잠재적 교육과정(latent curriculum)을 이용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차별에 대한 저항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도덕과 수업을 통한 반차별 교육이 성공하면, 학교 공동체의 노력이 자연스레 수반되고, 학교와의 의사소통에 의해 부모와 사회의 공동체들에도 학교의 다문화 존중과 차별의 철폐라는 도덕적 분위기가 전이되기 쉽다는 점에서 다문화시대에 대응한 다문화교육의 도덕과 교육에의 적용은 더욱 깊이 연구할 만하다.

## 참 고 문 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a).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6b). **도덕과 선택과목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교육인적자원부(2007).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정탁준(2006). 도덕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도덕교육방법 연구. **도덕윤리과교육**, 제22호, 227-256.
- Anderson, B. (1983). *Imagined Communities*. London: Verso.
- Banks, J. (1994, 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Ben-Israel, H. (1992). National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45(2).
- Berkowitz, M. (2002). The Science of character Education. In W. Damon (Ed.). *Bringing in a new era in Character education*. Hoover Press.
- Coombs, J. and Meux, M. (1971). Teaching Strategies for Value Analysis. In L. Metcalf (Eds.) *Values Education*. Washington D.C.: NCSS.
- Denzin, N. (2005). Postmodernism. *Encyclopedia of Social Theory*. London: Sage Publications, Inc.
- Etzioni, A. (1994). *The Spirit of Community*. N.Y.: Simon & Schuster.
- Fox, R. (1994). Nationalism: Hymns Ancient And Modern. *The National Interests*, Spring.
- Fraenkel, J. (1976). Teaching About Values. In C. Unnrlohde & J. Fraenkel (Eds) *Values of the American Heritage*. Washington D.C.: NCSS.
- Gutek, G. (1993). *American Education in a Global Society*. N.Y.: Longman.
- Hobsbawm, E. (1990).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Cambridge: The Press of University of Cambridge.
- Hofstede, G. (1996). *Cultures and Organizations*. Institute for Research on Intercultural Corporation, University of Limburg at Maastricht.
- Joyce, B. & Weil, M. (1996). *Models of Teaching*. Prentice-Hall, Inc.
- Keane, J. (1994). Nations, Nationalism and Citizens in Europe.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Vol. 140.
- Kirschenbaum, H. (1995). *100 Ways to Enhance Values and Morality in Schools and Youth Settings*. N.Y.: Allyn & Bacon.

- Laughlin, M. A. & Hartoonian, H. M. (1995). *Challenges of Social Studies Instruction In Middle and High Schools*. Harcourt Brace & Company.
- Lynch, J. (1987). *Prejudice Reduction and the Schools*. N.Y.: Nichols Publishing Company.
- Martiniello, M. (1997). *Sortir Des Ghetos Culturels*. Paris: Presses de Sciences Po. 윤진 옮김  
(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 Pfaff, W. (1993). *The Wrath of Nations*. N.Y.: Simon & Schuster.
- Straughan, R. (1982). *Can We Teach Children to Be Moral?*.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Ven, J. (1998). *Formation of the Moral Self*.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Wallerstein, I. (1974). *The Modern World-System I*. N.Y.: Academic Press.
- White, J. (1998). Moral Education. In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N.Y.: Routledge.

• 논문 접수 : 2007년 3월 21일 / 수정본 접수 : 2007년 5월 15일 / 게재 승인 : 2007년 5월 25일

## ABSTRACT

###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Education to Moral Education in a Multicultural Age of Korea

Tak-Joon Jung

(Professor, Mokpo National University)

Due to the fact of glob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Korea has experienced the multicultural features such as increasing immigrant laborers, intermarriage, polarization between socio-economic classes, sexism, and racism. Those experiences promote Korean moral education to include multicultural education which deals with the tolerance and the non-discrimination among students and citizens.

Though the national curriculum of Korean moral education has an interest on multicultural education, its purpose, contents and instructional methods is not enough to cope with the multicultural problems of Korean society. In a less abstract way, Korean moral curricular purpose need to embrace the multicultural concept of integration of a society that a real social cohesion can be achieved only by acknowledging and respecting diverse cultural values in society, not by oppressing and acculturizing them.

Key Words : ethnic state, multicultural education, moral education and multiculturalism, the purpose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content of multicultural education, the instructional methods of multicultural education

